

서울 三成洞出土 古瓦

朴 容 墳

I 머리말

그동안 百濟瓦當研究는 研究上의 便宜와 資料處理上의 問題로 수막새기와를 主對象으로한 推移過程과 造形的形式分類爲主의 研究를 進行하여 왔다. ① 그러나 그러한 研究方法을 止揚하고 암·수키와 등의 各種瓦資料를 發掘하여 瓦當研究의 對象範圍를 擴大하고, 그 形成經緯와 類型推移 및 造形的變遷過程을 綜合적으로 整理 分析하여 瓦當研究의 基本的인 方向을 模索하려 한다. 平面的인 造形物로서의 瓦當은 같은 建築用材인 相對的瓦類와의 相互關聯研究에서 理解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研究의 一次的인 作業對象地로 서울 江南區 三成洞 百濟故城址를 選定하여 그곳에서 收拾된 수막새기와 ② 現地踏査로 蒐集한 암·수키와의 資料를 本研究의 對象으로 삼은 것이다. 서울 三成洞出土古瓦를 資料로 選擇한 것은 百濟最古型의 卵頭形蓮瓣端形式의 蓮花文瓦當 ③이出土된 遺蹟地요, 그곳에서 百濟形式의 格子文·繩蓆文·波狀文·斜格文·橫線帶文 등의 土器片이 多數 發見되고 있어 수막새기와 와 함께 암·수키와의 경우도 百濟期의 것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例擧하는 모든 對象瓦資料가 수막새기와와 同時期의 百濟瓦라고 確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 資料들은 百濟의 遷都와 더불어多樣하게 展開되는 公州 ④ 扶餘 ⑤ 益山 ⑥ 및 百濟故地의 建築址出土古瓦

들과 造形上 일단은 對比研究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三成洞出土古瓦들은 수막새기와와 함께 百濟瓦當研究의 하나의 基準資料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假定하고 比較研究의 便宜上 任意로 選定한 對象物임을 밝히려 한다. 그것은 三成洞出土 수막새기와가 百濟蓮花文瓦當의 祖型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과는 다르지만, 百濟瓦當文化를 綜合적으로 研究推進하는 作業過程上 提起되는 問題를 풀어나갈 節次로 어떤 基準設定이 要請되기 때문이다.

II 三成洞出土 百濟 蓮花文瓦當

서울 三成洞出土 百濟蓮花文瓦當(圖版 I—1)은 造形原理上 具體的이고 說明的이며 寫實的인 瓦當으로서 百濟의 最古瓦型으로 看做되고 있다. 이 類型의 瓦當은 圓形內區에 八葉의 蓮瓣을 放射形으로 展開시킨 百濟素瓣蓮花文瓦當樣式의 基本類型이며, 그 祖型 ⑦이 되는 것으로 注目되고 있다. 이는 瓦當構成的인 造形的特徵으로 보아 高句麗瓦當文化의 受容으로 形成된 것이나, 立體的이고 雄勁한 高句麗의 蓮瓣이 平面的이고 簡素端雅한 百濟的인 造形感覺으로 轉形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그것은 瓦當文化의 受容過程에서 百濟의 文化的背景과 調和되고 또한 百濟人的인 造形的인 個性과 能力이 作用한 때문일 것이다.

이 瓦當의 形成期는 蓮花文構成이 百濟瓦當文化로서는 初期的인 素朴한 形狀을 하고 있으며, 漢城地域인 漢江流域에서 收拾되었고, 熊津城·泗泚城故地에서는 아직 發見例가 없는 點 등으로 미루어 보아 漢城代 ⑧의 末期作으로 보아서 좋을 것이다.

이 樣式의 瓦型에서 緣由된 百濟瓦로서는 扶餘 龍井里出土瓦當인 所謂 尖形蓮瓣端間小花瓣裝飾型式의 瓦例가 있다. ⑨ 이는 慶熙大學校博物館과 日本兵庫縣明石市の 井內古文化研究室 등에 收藏되고 있는 바, 六葉의 素朴한 蓮瓣과 瓣間의 空間裝飾 등의 內區文樣構成形狀이 本三成洞出土 수막새기와인 卵頭形蓮瓣端間珠文裝飾型式과 造形上 너무도 接近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祖型으로 한 瓦型이 泗泚城代까지 繼承發

展되고 있어 百濟蓮花文瓦當의 類型變遷研究上 注目되고 있다.

III 三成洞 암키와의 文樣類型

서울 三成洞에서 收拾된 암키와는 그 外面構成文樣의 造形的特徵에 따라 大體로 다음 七類型으로 分類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一 類型 格子文 암키와

瓦當文樣으로서 가장 오래된 格子文은 中國 戰國時代 河北省 易縣 燕 下都址出土 半瓦當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三成洞암키와의 格子文은 그 起源을 中國 燕下都址半瓦當에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初期 百濟의 打捺手法에 依한 土器表面의 文樣構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初期百濟土器의 主流가 打捺文에 依한 格子文·繩蓆文 등으로 施 文裝飾되었고, 암키와의 諸類型의 文樣도 打捺 또는 押型手法 등으로 叩 板處理하여 거의 同一한 製作技巧로 造瓦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文樣으로서의 格子文은 高句麗土器에서도 發見되나 그것은 施 文過程上의 差異로 말미암아 三成洞出土 格子文 암키와 文樣形成에 直接影響했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三成洞出土 百濟蓮花文 瓦當의 경우 高句麗系流의 것으로 系譜를 設定한다면 암키와의 文樣構成도 그와 併行해서 高句麗瓦系의 受容으로 形成된 것으로 推察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百濟의 格子文 암키와는 高句麗瓦當文化의 受容과 그에 앞선 金海 또는 初期百濟土器에서 보이는 格子文·繩蓆文土器 등 打捺手法에 依한 既往의 造形的經驗들이 複合된 文化的 產物로써 百濟全 期の 瓦文으로 繼承되었다.

三成洞出土 格子文 암키와는 文樣構成에 따라 다음 四形式으로 區分할 수 있다.

- I 形式 太線格子文 암키와 (圖版 I—二)
- II 形式 廣口格子文 암키와 (圖版 I—三)
- III 形式 細線格子文 암키와 (圖版 I—四)

IV 形式 太細交叉格子文 암키와 (圖版 I—五)

I 形式은 格子叩板이 굵어 井間이 좁은 構成形式이고, II 形式은 格子 文間的 井間을 넓게 마련한 것이며, III 形式은 格子文이 가늘고 井間이 좁은 形式이다. 그리고 IV 形式의 암키와는 굵은 縱線과 가늘은 橫線을 交叉시켜 格子文을 構成한 것이다.

二 類型 斜格文 암키와

이 類型은 初期漢城代에서 熊津城·泗泚城代의 瓦文樣으로 繼承發展 된 것인바 특히 公州 百濟武寧王陵磚文樣中 斜格文磚에서 高度의 技術을 發揮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形式의 瓦文이라 할지라도 時代的變遷에 따라 文化受容의 經緯 및 過程 그리고 瓦磚工의 技術과 個性的인 能力 등의 結果으로 造形的인 開發이 繼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文樣構成에 따라 分類해 보면 다음 三形式으로 된다.

I 形式 太線斜格文 암키와 (圖版 I—六)

II 形式 細線斜格文 암키와 (圖版 I—七·八)

III 形式 狹間斜格文 암키와 (圖版 II—九)

I 形式은 굵은 線文으로 構成된 斜格文叩板을 가지고 成形한 것이며, II 形式은 緩斜線文(圖七)과 急斜線文(圖八)의 二型式으로 다시 細分되고 斜格文井間形態에 差異를 보인다. III 形式은 格子間의 間隔을 매우 좁게 構成한 것이다.

三 類型 平行線文 암키와

이 類型의 암키와는 平行線文樣을 瓦外面에 縱線帶로 構成하고 있음이 特徵이다. 이는 叩板文樣의 크기에 따라 太線平行線文 암키와 形式(圖版 II—一〇, 一一)과 細線平行線文 암키와 形式(圖版 II—一二)으로 區分된다. 이들은 扶餘 金剛寺址에서 多數發見되고 있으므로 百濟下代까지 즐겨 썼던 암키와 文樣의 한 形式임을 엿볼 수 있다.

四 類型 斜線文 암키와

이 키와는 平行斜線文을 特徵으로 하고 있으며, 太線과 細線の 二形式으로 區分된다. Ⅰ形式인 太線平行斜線文암키와(圖版 Ⅱ—一三)는 模骨에 着裝한 麻布木에 比較的 精選된 胎土의 粘土板을 입혀 太線平行斜線刻印板으로 成形한 것이다. Ⅱ形式인 細線平行斜線文암키와(圖版 Ⅱ—一四、一五、一六)에서 圖一四의 경우는 文樣面이 가지런하게 構成되었고, 圖一五의 경우는 瓦外面成形過程에서 鮮明치 못한 斜線文上에 再次 印板을 使用施文하여 硬質의 造瓦를 하려했음을 上面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前者보다 銳利한 印板임도 判讀할 수 있다. 圖一六의 경우는 圖一四의 印板과 同型의 印板을 가지고 粘土板面을 橫線帶로 일단 整形한 다음 다시 그 위를 縱線帶로 押捺成形한 痕跡을 보이고 있다.

五 類型 羽狀文 암키와

羽狀文 암키와는 百濟建物址에서 多數 發見되고 있어 암키와 構成文樣으로 一般化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扶餘 金剛寺址에서도 收拾調査된 바 있다. ㉞三成洞出土 羽狀文암키와는 그 形態에 따라 다음 三形式으로 分類할 수 있다.

Ⅰ形式 線對稱羽狀文암키와(圖版 Ⅲ—一七~二〇)

Ⅱ形式 斜縱線羽狀文암키와(圖版 Ⅲ—二二)

Ⅲ形式 變形羽狀文암키와(圖版 Ⅲ—二二)

Ⅰ形式은 그 文樣構成의 造形的特徵에 依해 다시 四形式으로 細分되는데, 그 一型式(圖一七)은 縱線帶없는 對稱羽狀文型式이고, 二型式(圖一八)은 斜格羽狀文型式이며, 三型式(圖一九)은 一縱線帶羽狀文即帶狀羽狀文型式이다. 그리고 四型式(圖二〇)은 二縱線帶羽狀文型式의 外面裝飾을 볼 수 있다. Ⅱ形式은 斜線과 縱線을 交互하여 瓦外面을 斜縱線羽狀文으로 成形한 것이다. Ⅲ形式은 數條의 太斜線을 서로 빗대서 文樣을 構成한 印板으로 成形한 것이다. 이는 三成洞出土 암키와中가

장 두꺼운 것이나 古式의 造形感을 주는 瓦例의 하나다.

六 類型 繩蓆文 암키와

이 瓦文의 起源도 中國 戰國期 瓦例에서 發見할 수 있다. ㉞그러나 百濟瓦文으로서의 繩蓆文은 格子文과 같이 高句麗瓦當文化와 金海土器 그리고 初期百濟의 格子文·繩蓆文土器製作㉞등의 先行된 經驗들이 多樣하게 複合된 文化的 狀況에서 自然스럽게 形成되었을 것이다. 繩蓆文은 土器에서와 같이 ㉞百濟를 一貫한 瓦文임을 各建物址出土瓦例에서 볼 수 있다. 三成洞出土 繩蓆文암키와는 大體로 다음 三形式으로 分類된다.

Ⅰ形式 斜線繩蓆文암키와(圖版 Ⅲ—二三)

Ⅱ形式 縱線繩蓆文암키와(圖版 Ⅲ—二四)

Ⅲ形式 斜縱線繩蓆文암키와(圖版 Ⅲ—二五)

Ⅰ形式은 百濟全期의 典型的인 瓦文形式이며, Ⅱ形式은 繩蓆文印板을 縱線帶로 成形한 것이고, Ⅲ形式은 太線繩蓆文押型具를 斜線帶와 縱線帶로 交互押捺하여 成形한 것으로 그 形狀이 特異하다.

七 類型 素文 암키와

素文암키와는 無文의 瓦工具로 粘土板外面을 成形한 것인 바, 이의 起源도 中國 戰國期의 半瓦當과 함께 쓰여진 암키와에서 그 遺例를 볼 수 있다. ㉞그러나 서울 三成洞出土 素文암키와(圖版 Ⅳ—二六、二七) 혹은 百濟의 素文암키와는 格子文·繩蓆文암키와와 같이 多樣하게 複合된 文化的 背景에서 形成되었을 것이다. 百濟土器의 文樣別比率에서 無文土器가 가장 많은 比率㉞을 차지하고 있음과 같이 素文암·수키와 역시 百濟全期에 걸친 造形上 基本瓦形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서울 三成洞出土 암키와의 類型과 形式을 瓦外面을 構成裝飾한 文樣을 中心으로 分類하고, 그 形成過程과 造形的인 構造特徵을 살펴 보았다. 이를 集約하여 圖表化해보면 別表一과 같다.

IV 三成洞 수키와의 文樣類型

서울 三成洞出土 수키와는 암키와에서와 같이 高句麗瓦當文化와 初期百濟 土器文化의 영향으로 瓦文構成의 造形的인 卍板文樣이 形成된 것으로 思料된다.

어떤 建物の 壯嚴은 建物の 架構用材와 屋蓋敷葺用材에서 잘 나타나며, 이들은 建物の 保存과도 相關關係가 있게 된다. 따라서 암·수키와는 한 建物の 屋蓋面을 敷葺裝飾하여 建物の 威容을 보일 뿐만 아니라 빠른 落水處理로 建物を 保護해야 하는 建築材로써의 必要條件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瓦文構成에 있어서도 그것은 建物保存材로써의 要求와 條件을 配慮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前提에서 三成洞수키와를 살펴보면, 一、平行線文수키와 二、同向位角文수키와 三、斜線文수키와 四、素文수키와 등의 四類型으로 大別되며, 이들은 上述한 屋蓋裝飾과 保存處理의 諸要件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一 類型 平行線文 수키와 (圖版 IV-118)

이 類型的의 수키와는 수키와의 外面을 不整形의 平行線文卍板을 縱線帶로 成形한 것을 말한다. 內面은 암키와에서와 같이 模骨에 着裝된 平織의 麻布木文으로 되어 있어 그 製作技巧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二 類型 同向位角文 수키와 (圖版 IV-119)

同向位角文수키와는 原型인 同向位角文卍板이나 押型具로써 成形한 것이 아니라 太線刻한 卍板 또는 押型具로써 粘土板을 成形하는 過程에서 생겨난 文樣인 것 같다. 그것은 圖版 IV-119에서 보는 것처럼 太線의 左右斜線文을 먼저 施文하고, 그 위에 다시 左右斜線文具로써 押捺된 痕跡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太線文의 卍板 또는 押型具를 利用한 수키와의 成形過程에서 하나의 造形的인 同向位角文이 形成된 것 같다.

三 類型 斜線文 수키와

三成洞出土 斜線文수키와는 卍板文樣的 形態에 따라 I 細線斜線文과 II 太線斜線文의 두 形式으로 分類할 수 있다. I 形式인 圖版 IV-130의 수키와는 細線으로 된 卍板 또는 押型具를 가지고 粘土板面을 斜線帶로 成形한 것이다. II 形式인 圖版 IV-131의 수키와는 太線刻한 卍板으로 두세번 押捺한 것임을 볼 수 있다.

四 類型 素文 수키와

이 素文수키와는 模骨에 着裝한 布木위에 粘土板을 입혀 文樣卍板이나 有文押型具를 쓰지 않고 無文의 瓦工具로 成形한 類型이다. 이같은 素文수키와는 百濟全期는 勿論 그 뒤 오늘날까지 繼承되어 瓦當造形으로 一般化된 形式이다.

이들 수키와의 資料를 別表二에 集約整理하였다.

V 結 論

서울 三成洞出土 蓮花文瓦當은 그 造形的 構成特徵으로 보아 高句麗瓦當文化의 受容과 百濟人의 造形的個性이 作用하여 形成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雄勁한 高句麗的特徵이 平面的이고 簡素端雅한 百濟的特徵으로 그 造形感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同時에 이 瓦當은 造形原理上 素朴하고 具體的이며 說明的이고 寫實的인 文樣構成을 하고 있어 百濟瓦當으로서 初期的인 形狀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三成洞出土 蓮花文瓦當은 百濟素瓣蓮花文瓦當의 最古型이며, 造形上의 基本類型 내지 祖型이 되는 遺例作으로써 그 造瓦期는 漢城代로 推定하고 있다.

그리고 三成洞에서 收拾된 암·수키와의 資料들은 모두가 百濟代의 것이라고 確證할 수는 없으나, 百濟故地의 建物址에서 發見되는 암·수키와의 文樣과 그 構成形式이 大體로 相關되고 있는 것들을 對象으로 한 것이다. 이들의 암·수키와 文樣은 그 起源을 中國戰國期 瓦例에서

類 型	形 式	圖 版	內面文	두 께	燒 成	色 調	備 考
1. 格子文	I. 太線格子文	I-2	布目	1.8cm	堅固	灰黑	
	II. 廣口格子文	I-3	布目	1.7	軟質	灰白	
	III. 細線格子文	I-4	布目	1.7	堅固	灰色	
	IV. 太細交叉格子文	I-5	布目	1.8	堅固	灰褐	
2. 斜格文	I. 太線斜格文	I-6	布目	1.8	堅固	灰色	※ 指紋痕跡 1. 緩斜線斜格文 2. 急斜線斜格文
	II. 細線斜格文	I-7	布目	2.0	堅固	灰色	
	III. 狹間斜格文	I-8 II-9	布目	1.8 2.0	堅固 堅固	灰色 灰色	
3. 平行線文	I. 太線平行線文	II-10	布目	2.4	堅固	灰色	※ 布木文의 이음매
	II. 細線平行線文	II-12 II-11	布目	1.3 1.7	堅固 軟質	青灰 灰褐	
4. 斜線文	I. 太線平行斜線文 II. 細線平行斜線文	II-13	布目	1.5	堅固	青灰	※ 壓痕
		II-14	布目	1.5	堅固	灰色	
		II-15	布目	1.5	堅固	灰色	
		II-16	布目	1.5	堅固	灰褐	
5. 羽狀文	I. 線對稱羽狀文 II. 斜縱線羽狀文 III. 變形羽狀文	III-17	布目	1.5	堅固	青灰	1. 無縱線帶羽狀文 2. 斜格羽狀文 3. 一縱線帶羽狀文 4. 二縱線帶羽狀文
		III-18	布目	1.5	堅固	青灰	
		III-19	布目	1.5	堅固	青灰	
		III-20	布目	1.8	軟質	灰褐	
		III-21	布目	1.3	堅固	青灰	
6. 繩蓆文	I. 斜線繩蓆文 II. 縱線繩蓆文 III. 斜縱線繩蓆文	III-23	布目	1.5	堅固	灰黑	※ 布木文의 이음매
		III-24	布目	1.7	堅固	青灰	
		IV-25	布目	2.0	軟質	赤褐	
7. 素文	I. 素文	IV-26	布目	1.0	堅固	灰色	※ 布木文의 刷子痕
		IV-27	布目	1.5	堅固	青灰	

表 1. 서울三成洞出土 암키와 資料

類 型	形 式	圖 版	內面文	두 께	燒 成	色 調	備 考
1. 平行線文	I. 縱線平行線文	IV-28	布目	2.0cm	堅固	赤褐	
2. 同向位角文	I. 同向位角文	IV-29	布目	1.2	堅固	青灰	
3. 斜線文	I. 細線斜線文	IV-30	布目	1.0	軟質	灰白	
	II. 太線斜線文	IV-31	布目	1.4	堅固	青灰	
4. 素文	I. 素文	IV-32	布目	1.7	堅固	青灰	

表 2. 서울三成洞出土 수키와 資料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三成洞出土 암·수키와의 諸文樣은 高句麗系의 瓦當文化와, 瓦當文化에 先行하는 初期百濟의 打捺文土器의 器面構成文樣에서 刺戟되고 誘導되어 形成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암키와에서 보는 格子文樣을 비롯한 繩蓆文等 諸文樣構成이 百濟初期의 土器文樣과 有機的인 關係에 있다고 보여지며, 特히 암·수키와의 外面成形에 있어서 打捺내지 押型手法 등은 土器의 器面成形過程과 거의 같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三成洞 암·수키와의 卍板文樣은 이같이 多樣하게 複合된 文化的背景에서 成立되고 百濟瓦文으로 定着되어 간 것이다. 이는 百濟建物址에서 發見되는 암·수키와 文樣構成 資料가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三成洞出土의 多樣한 文樣類型的 암·수키와는 같은三成洞出土 수막새기와와 함께 百濟瓦當研究의 한 基準資料가 될 것이며, 또한 수막새기와 中心의 瓦當研究에서 그 對象範圍를 擴大하여 綜合的인 研究를 試圖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勿論 암·수키와는 수막새기와만 큼 그 造形上의 變化가 顯著하지 않을지 모르나 그와의 對比研究를 通한 類型 그리고 造形的인 推移過程과 編年研究까지도 可能할 것으로 본다.

또한三成洞出土 암·수키와의 內面文樣은 모두 平織의 布木文으로 一貫되고 있음이 特徵이다. 이 布木文의 起源도 中國 戰國期 瓦當의 內面文構成에서 平織의 麻布木文을 發見할 수 있다.② 여기서 우리는 韓國 古代文化의 形成過程을 他文物과 함께 瓦當文化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같은 布木文은 平織의 麻布木의 옷을 模骨에 입힌 다음 粘土板을 附着시켜 文樣印板 또는 押型具로 押捺成形하는 過程에서 그대로 文樣化 된 것이다. 암·수키와의 內面文構成으로서의 布木文은 百濟全期는 勿論 오늘날의 在來瓦製造過程에서도 그것은 製法이 傳承 維持되어 오고 있다.③ 여기서 瓦當文化의 오랜 傳統과 國際性을 發見할 수 있으며, 瓦當文化圈設定의 根據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百濟瓦當文化의 外延的 擴大에서 發展된 新羅와 日本古代의 瓦當文化는 同一한 瓦當文化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百濟의 文化의 傳統은 國際的으로 지금까지 이어져는 셈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서울三成洞出土 古瓦는 百濟瓦當의 綜合的研究의 새로운 課題提起와 아울러 그 基準對象이 되는 것으로서 歷史上 莫重할 뿐만 아니라 造形美術史上 學術的·文化的意味와 價値를 갖는 貴重한 資料들이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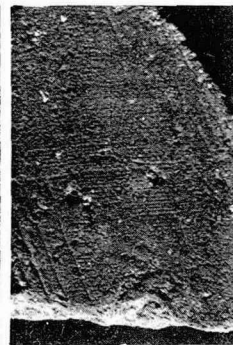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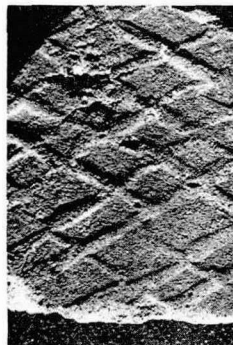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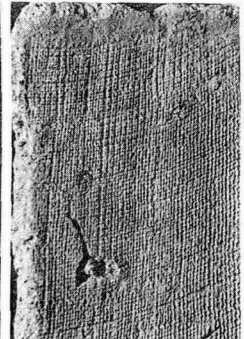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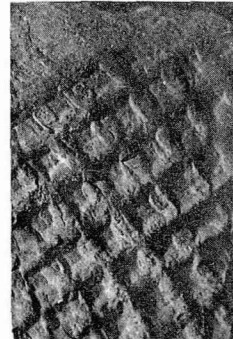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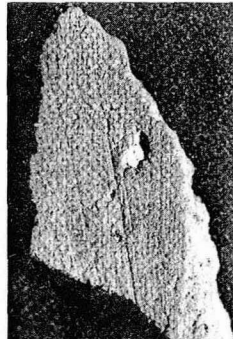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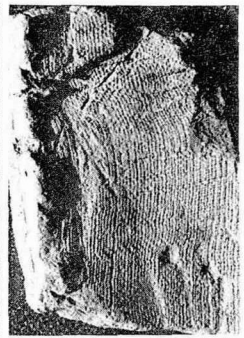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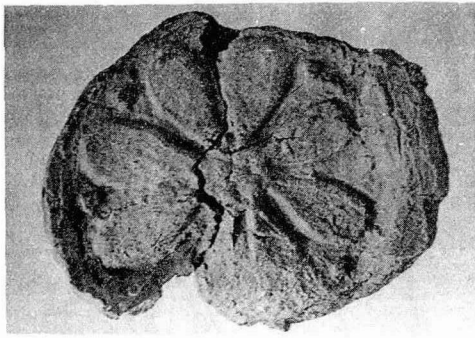
註

- ① 一、朴容填：百濟瓦當에 關한 研究，公州敎大論文集五，一九六八
- 二、朴容填：百濟瓦當의 體系的分類一，百濟文化七，八合輯，一九七五
- ② 一、金和英：三國時代蓮華文研究，P. 八七，歷史學報三四，一九六七
- 二、朴容填：前揭註①一，論文 P. 三八 圖二
- 三、忠南大百濟研究所：百濟瓦當圖譜，P. 九四、圖一、一九七二

四、朴容填：前揭註①二，論文 P.P. 一八〇—一八一、圖版一—五、薛貞連：百濟蓮華文瓦當編년에 關한 研究，P. 九圖一、慶熙大大學 院 一九七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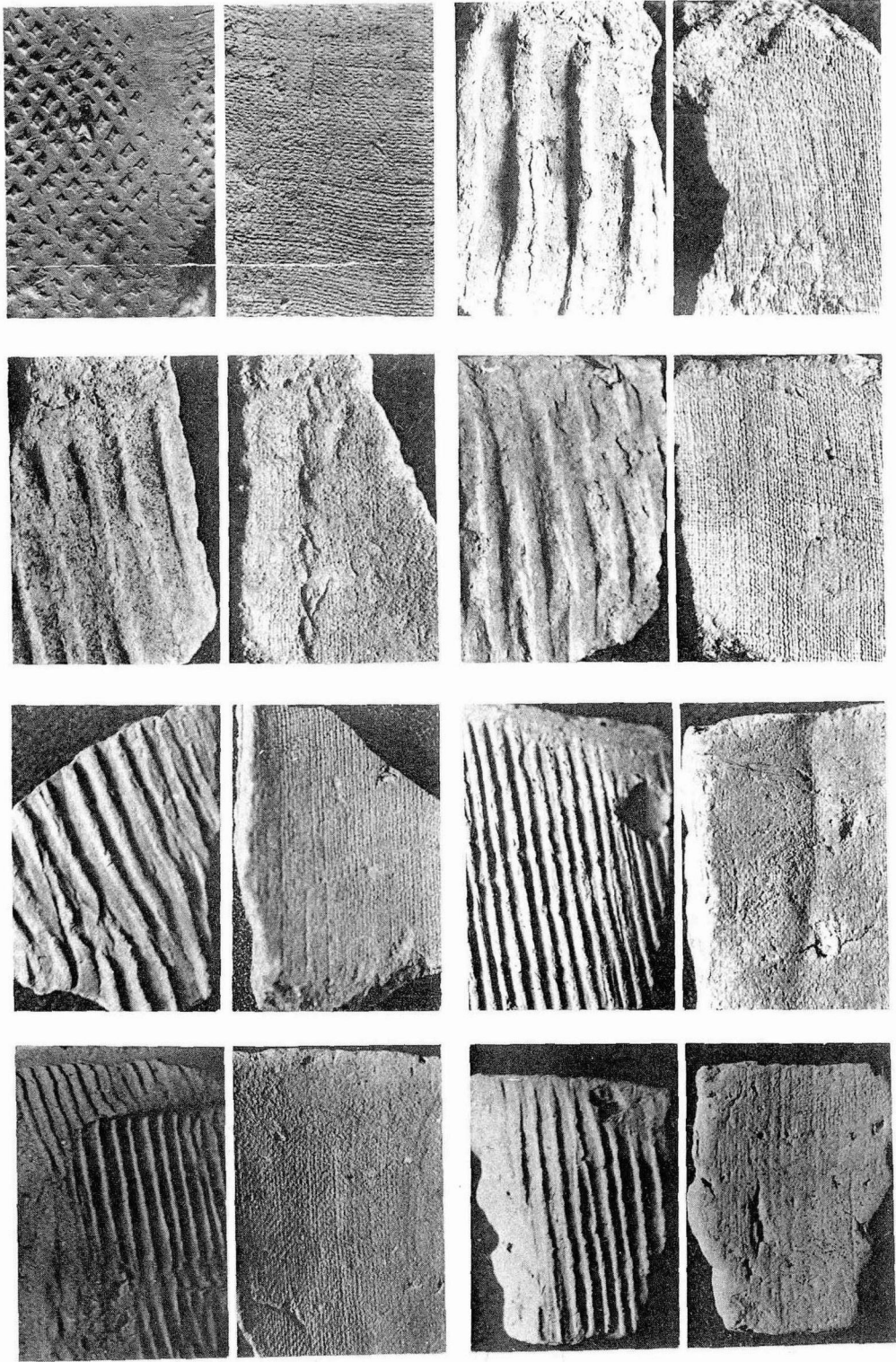
- ③ 朴容填：前揭註①一，論文 P.P. 一八〇—一八一
- ④ 朴容填：公州出土의 百濟瓦當에 關한 研究，P.P. 六四—六六 圖三五—四一、百濟文化六、一九七三
- ⑤ 大川清：扶餘郡恩山面 金剛寺出土古瓦의 研究，P.P. 一二四—一二五 百濟文化六、一九七三
- ⑥ 筆者註：益山彌勒寺址·帝釋寺址 등지에서 서울三成洞 암·수키와와 같은 類型的의 것이 發見됨
- ⑦ 一、朴容填：前揭註①二，論文 P. 一八三、圖版 II—一五—一八 二、薛貞連：前揭註②五，論文 P. 四三、圖四九
- ⑧ 一、金和英：前揭註②一，論文 P. 八七 二、朴容填：前揭註①一，論文 P. 三九、①二，論文 P. 一八一
- ⑨ 前揭註⑦一、二，論文
- ⑩ 世界考古學大系六，東アジア II，P. 三三三、三三六—三六一〇、平凡社 日本、一九六五
- ⑪ 金元龍：韓國美術史，P. 九九 汎文社，一九七三
- ⑫ 金元龍：韓國美術史，P. 六五
- ⑬ 朴容填：前揭註④ 論文 P.P. 六四—六六、圖三五—四一
- ⑭ 大川清：前揭註⑤ 論文 P.P. 一二四—一二五
- ⑮ 大川清：前揭註⑤ 論文 P.P. 一二四—一二五、三三六—三七—一四、III—一五 一—九
- ⑯ 關野雄：中國考古學研究、膝城と薛城の遺跡について、. 三一九、五五圖 四、東京大學出版會、一九七二
- ⑰ 金元龍：前揭註⑩ 書 P. 二九、P. 九九
- ⑱ 安承周：百濟古墳의 研究，P. 一四〇、百濟文化七、八合輯、一九七五
- ⑲ 關野雄：前揭註⑯ 書 P. 三一九
- ⑳ 安承周：前揭註⑱ 論文 P. 一四〇
- ㉑ 關野雄：前揭註⑱ 書 P. 三一九
- ㉒ 大川清：前揭註⑤ 論文、P.P. 一二九—一三〇、圖版一三一—一六

(고주 교육대학 교수)



一 圖





圖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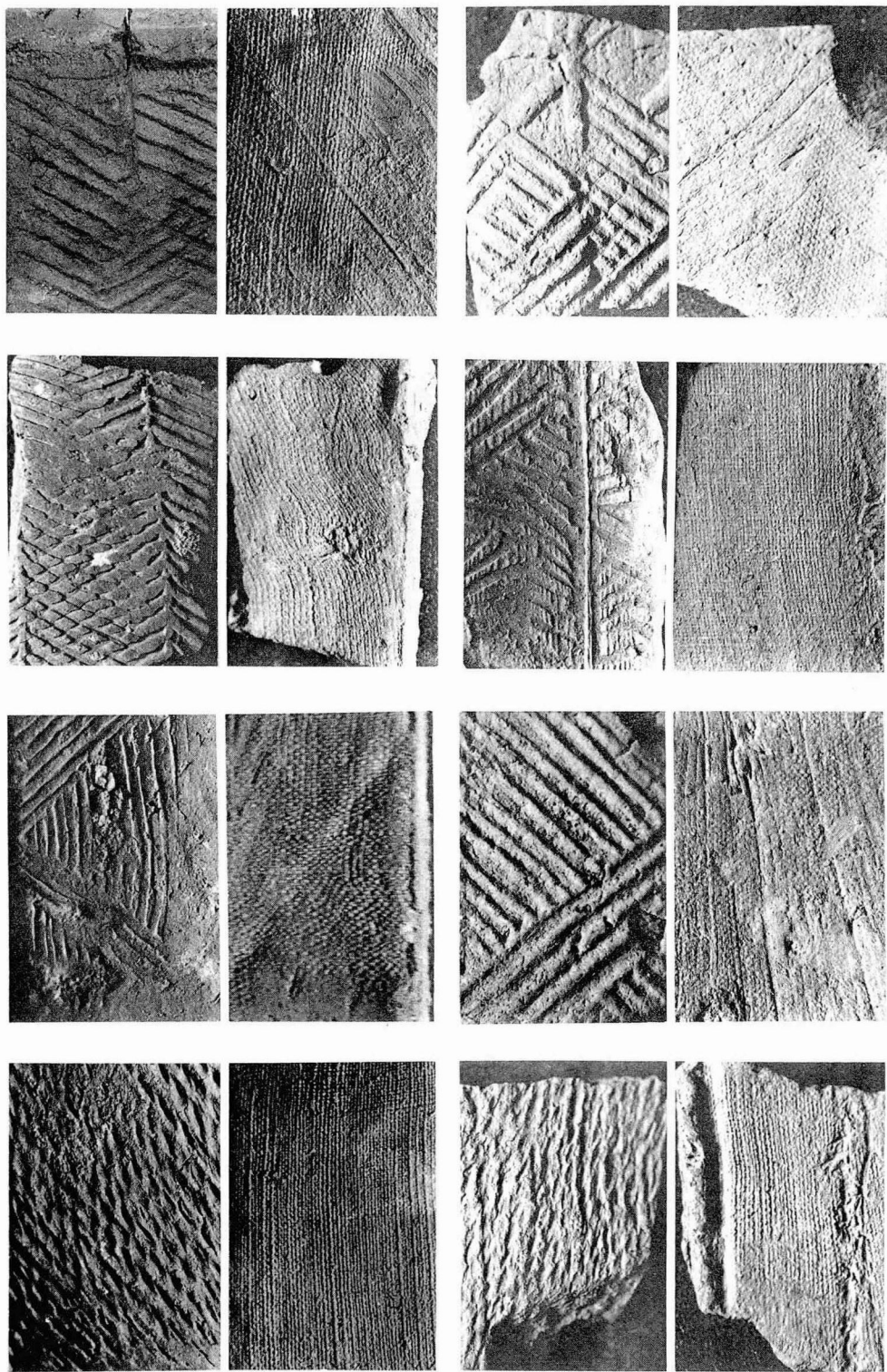


圖 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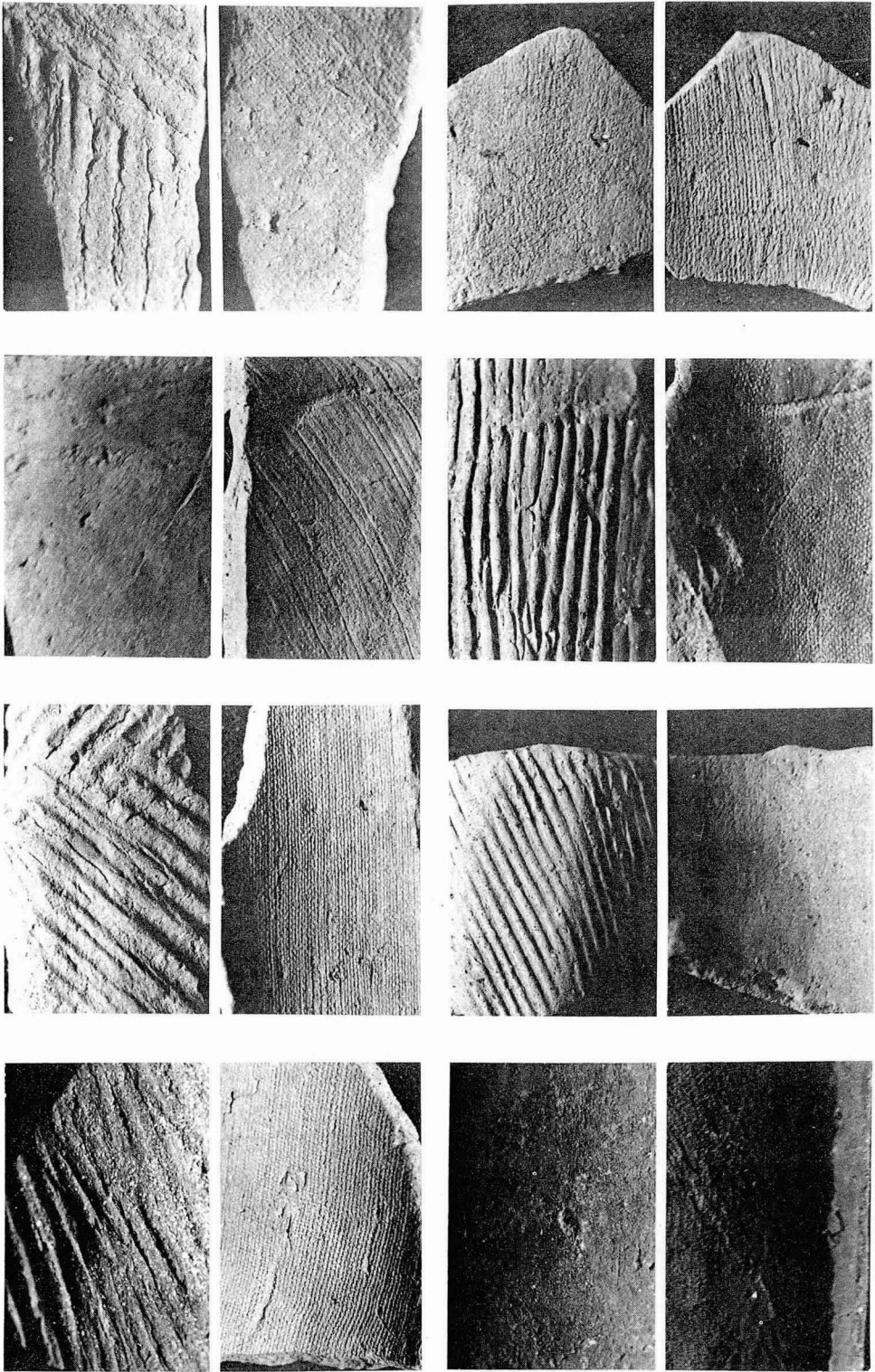


圖 四